

‘매일져’ KIA



선동열 감독

선수-코칭스태프 소통 부재... 성적 급급 팀컬러 실종 3년 연속 가을야구 좌절... 한화와 꼴찌 싸움 신세 전략

V10에 빛나는 야구 명가의 투혼은 없었다. 올 시즌에도 ‘호랑이 군단’은 가을잔치의 들러리일 뿐이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호랑이 군단’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KIA는 3년째 남의 잔치를 지켜보게 됐다. 선동열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12년 5위에 이어 지난해 8위, 올 시즌에도 한화와 꼴찌다툼을 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선수·코칭스태프·구단의 총체적 난국 속에 새 안방에서 야구 명가가 몰락했다.

◇“내 탓이오”에 발목 잡힌 질주
이번에도 여름 고비를 넘지 못했다. 똑 떨어진 페이스에 하늘까지 원망스러웠다. 특히라면 내리는 비에 반번이 흐름이 끊기면서 패배가 이어졌다. 비에 젖은 성적 탓에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선수들은 한데 모이고 분위기를 다독여줄 코칭스태프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코칭스태프는 팀에 대한 희생정신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선수들의 빈틈을 얘기했다.

‘노사갈등’도 여전했다. 속수무책 침몰하는 팀을 지켜보면서도 전전긍긍 하는 구단을 놓고 선수·코칭스태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프런트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선수단이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 프런트 내부의 눈치 싸움과 갈등도 팀을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

“내 탓이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KIA의 추락은 가속화됐다.

◇발등의 급한 불만 끈 구단
먼 미래를 위한 꾸준함이 아니라 눈 앞의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한 운영이 계속됐다. KIA는 이범호-김주찬-이대형 영입 등으로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행보를 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오버페이 논란 속 내부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탓에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들의 부담감도 컸다.

근성과 투지로 무장한 옛 선배들과 달리 KIA라는 이름 아래서는 ‘팀컬러’가 사라졌다. KIA 스타일로 내부 자원을 키우기 보다는 당장의 성적을 위해 매년 전력을 급조하다 보니 꾸준함과 특색있는 팀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팀컬러가 실종된다. 팀시스템도 갖춰지지 못하면서 사령탑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팀이 쉽게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

졌다.

◇소통 실패,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
KIA의 화두였던 ‘소통’은 끝내 선동열 감독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구단과 선 감독은 ‘소통’을 실패의 한 요소로 꼽았다. 구단은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을 강조하며 ‘All New Stadium! All New KIA TIGERS!’를 2014 시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는 의미였지만 지난 2년의 실패가 컸다.

선수들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여기에 전략적인 실패가 이어지면서 ‘소통’은 제자리걸음이 됐다.

구단도 ‘소통’의 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기존의 강압적이었던 구단 문화는 그늘을 드리웠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구단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여전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팀, 한가족이 보다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무리력한 선수단, 베테랑의 부재
이런저런 사연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어 했지만 선수들은 프로답지 못했다.

강적 앞에서 쉽게 꼬리를 내렸고, 자기 관리에서 철저하지 못했다. ‘부상도 실력’이지만 올해도 부상은 쉬어가지 않았다. 준비 부족으로 힘을 써야할 여름철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2014시즌을 흘러보냈다.

위기에서 팀을 잡을 베테랑의 역할도 아쉬웠다. 투·타의 베테랑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다 보니 팀 중심 선수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낯선 팀에서의 입지 다지기 우선 목표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새 팀에서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면서 선수단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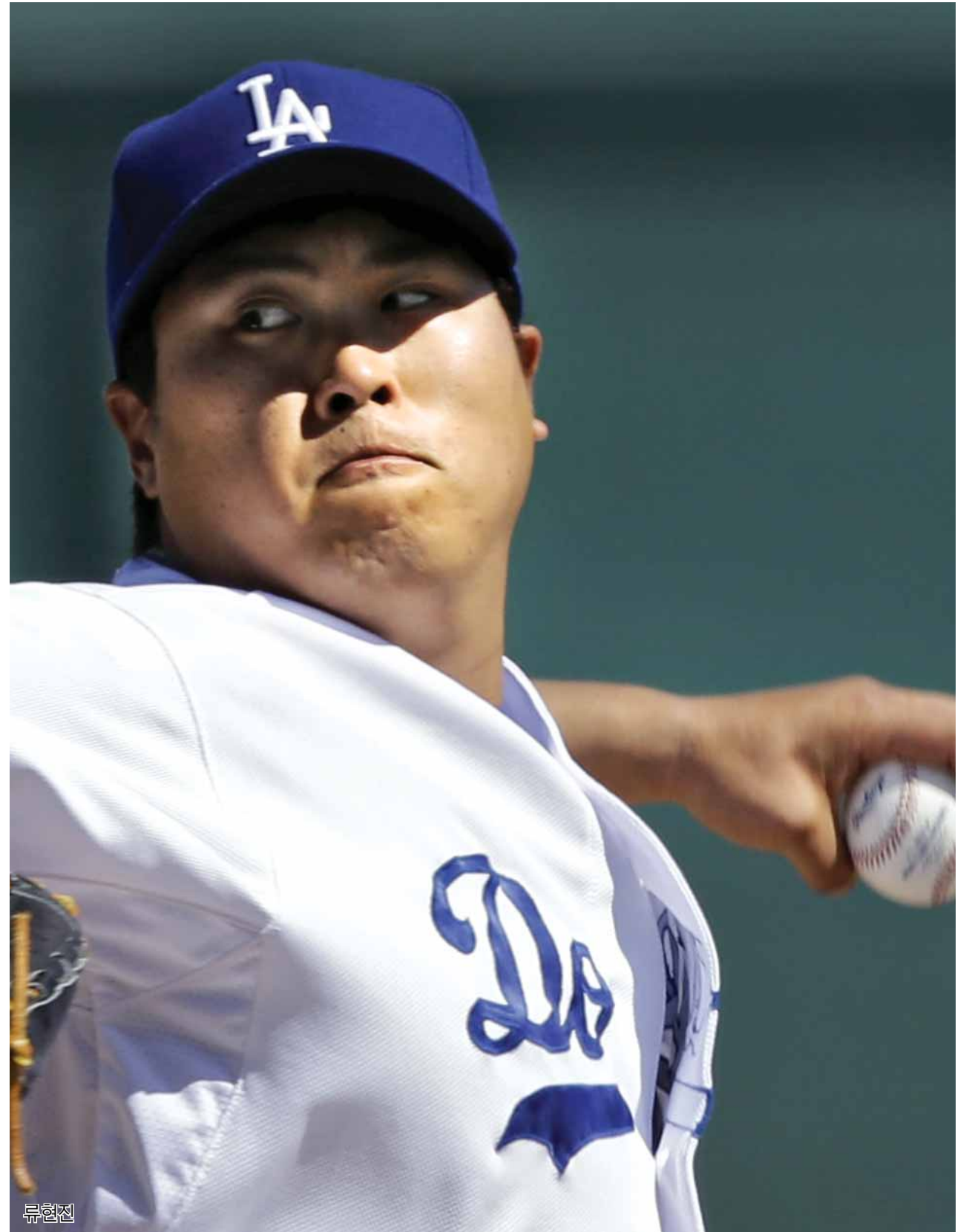
치열한 경쟁자이지만 그라운드에서는 승리를 위한 공통 목표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함께 살 수 있다.

“홀어지면 죽고 똥지민 산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하는 KIA 타이거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 류



류현진

잡은 부상에도 복귀전마다 호투... 3선발 입지 굳혀 시즌 14승 8패·평균자책점 3.60으로 마감

네 번의 부상과 두 차례의 부상자 명단(DL) 등재. 미국 언론은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몸 상태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류현진은 복귀전마다 호투를 펼치며 건재를 과시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류현진은 박리그 두 번째 시즌인 2014년 다저스의 확실한 3선발로 자리매김했다.

다저스가 8월(이하 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에서 패하며 류현진의 2014 시즌도 막을 내렸다.

류현진은 정규시즌 26경기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했고, 포스트시즌에서는 한 차례 나서 6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 정규시즌 30경기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 포스트시즌 2경기 1승 평균자책점 3.60(10이닝 9피안타 4실점)과 비슷한 결과다.

15승,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한국인 최다승(18승) 경신이 부상으로 좌절된 점은 아쉽다. 올해 류현진은 잔 부상에 시달렸다. 3월 24일 호주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개막 2차전에서 왼 엄지발톱을 다쳤고, 4월 28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는 왼 견갑골 부상을 당했다. 회복이 더뎠던 류현진은 부상자 명단(DL)에 오르기도 했다.

8월 14일 애틀랜타와 경기에서는 엉덩이 근육 통증으로 자

진강판하고 다시 DL에 등재됐다. 9월 13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는 1회를 마치고 왼 어깨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때 DL에 오르지 않았지만 남은 정규시즌 등판을 포기했다. 잔부상에 발목을 잡힌 류현진은 결국 15승 도전을 멈췄다.

하지만 류현진은 복귀전 호투로 부상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엄지발톱 통증을 극복하고 3월 31일 샌디에이고전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24일 만에 등판한 5월 22일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는 6이닝 9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두 번째 DL에서 복귀한 9월 1일 샌디에이고전에서 7이닝 4피안타 1실점 완봉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7일 세인트루이스와의 NLDS 3차전에서는 공백을 무색하게 하는 완봉투 제구로 6이닝 5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MLB닷컴이 류현진을 수식하며 가장 많이 쓴 표현은 “The No.3 starter(3선발)”였다. 미국 언론은 입을 모아 다저스의 장점을 “강력한 1·2·3선발”로 꼽으며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인키와 함께 류현진을 언급했다.

표면적인 성적은 루키시즌(2013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류현진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연합뉴스

다저스, 챔피언십 진출 실패 디비전 시리즈 STL에 1승 3패

3일 쉬고 선발 등판한 클레이턴 커쇼(26)의 투혼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다저스는 8월(이하 한국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에서 2-3으로 역전패했다. 결국 다저스는 1승 3패로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는 지난해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에 2승 4패로 패해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다. 올해는 더 빨리 세인트루이스를 만나 디비전시리즈에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커쇼를 3일 휴식 후 4차전에 내보내는 초강수를 뒀다. 6회까지 94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2-0으로 앞선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이미 커쇼는 지친 상태였다. 맷 홀리데이와 조니 페랄타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무사 1·2루 위기를 맞은 커쇼는 맷 애덤스에게 시속 119km짜리 커브를 던지다 역전 우월 3점포를 얻어맞았다.

다저스는 9회초 2사 1·2루에서 크로퍼드가 2루 땅볼에 그치며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쓸쓸히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